**새 예루살렘이 됨**

**1/8 월**

**계 21:9-11, 12-21**
**9** 마지막 일곱 재앙이 가득 담긴 일곱 대접을 가진 일곱 천사 중 하나가 나에게 와서 말하였습니다. “이리 오십시오. 내가 신부, 곧 어린양의 아내를 보여 드리겠습니다.”
**10** 내가 영 안에 있는데, 천사가 나를 데리고 크고 높은 산으로 올라가서, 하늘에서 하나님에게서 내려오는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을 나에게 보여 주었습니다.
**11** 그 성에는 하나님의 영광이 있고, 성의 빛은 가장 귀한 보석 같았고 수정처럼 맑은 벽옥 같았습니다.
**12** 그 성에는 크고 높은 성벽이 있었고, 열두 문이 있었습니다. 그 문들에는 열두 천사가 있었으며, 이스라엘 자손 열두 지파의 이름이 새겨져 있었습니다.
**13** 동쪽에 세 문, 북쪽에 세 문, 남쪽에 세 문, 서쪽에 세 문이 있었습니다.
**14** 그 성의 성벽에는 열두 기초가 있는데, 기초들에는 어린양의 열두 사도의 열두 이름이 있었습니다.
**15** 나에게 말하던 천사는 그 성과 문들과 성벽을 측량하려고 금갈대 자를 가지고 있었습니다.
**16** 그 성은 네모반듯하고 길이와 너비가 같았습니다. 그 천사가 갈대로 그 성을 측량하니, 만 이천 스타디온이었고 길이와 너비와 높이가 모두 같았습니다.
**17** 또 그가 사람의 자, 곧 천사의 자로 성벽을 측량하니, 백사십사 규빗이었습니다.
**18** 성벽은 벽옥으로 건축되어 있었고, 그 성은 맑은 유리와 같은 순금으로 되어 있었습니다.
**19** 그 성의 성벽의 기초는 각종 보석으로 단장되어 있었는데, 첫째 기초는 벽옥이요, 둘째는 청옥이요, 셋째는 옥수요, 넷째는 비취옥이요,
**20** 다섯째는 홍마노요, 여섯째는 홍옥수요, 일곱째는 귀감람석이요, 여덟째는 녹주석이요, 아홉째는 황옥이요, 열째는 녹옥수요, 열한째는 풍신자석이요, 열두째는 자수정이었습니다.
**21** 또 열두 문은 열두 진주로 되어 있었는데, 그 문들은 각각 하나의 진주로 되어 있었습니다. 그리고 성의 길은 투명한 유리와 같은 순금이었습니다.

**1/9 화**

**계 4:3** 앉아 계신 분의 모습은 벽옥과 홍옥수와 같았으며, 그 보좌 주위에 있는 무지개의 모습은 비취옥과 같았습니다.

**계 21:11** 그 성에는 하나님의 영광이 있고, 성의 빛은 가장 귀한 보석 같았고 수정처럼 맑은 벽옥 같았습니다.

**요 3:6** 육체로 난 것은 육체이고 그 영으로 난 것은 영입니다.

**요 14:20, 23**
**20** 그날에는 내가 아버지 안에 있고, 여러분이 내 안에 있으며, 내가 여러분 안에 있는 것을 여러분이 알 것입니다.
**23** 예수님께서 그에게 대답하셨다. “누구든지 나를 사랑하면 나의 말을 지킬 것입니다. 그러면 나의 아버지께서 그를 사랑하실 것이고, 우리가 그에게 가서 그와 함께 서로 거처를 정할 것입니다.

**히 2:11** 거룩하게 하시는 분과 거룩하게 되고 있는 사람들이 모두 한 분에게서 났으므로, 예수님께서 그들을 형제들이라 부르시기를 부끄러워하지 않으시고,

**롬 12:2** 여러분은 이 시대를 본받지 마십시오. 오직 여러분은 생각이 새로워짐으로 변화되어 하나님의 선한 뜻,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뜻, 하나님의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십시오.

**롬 8:29-30**
**29** 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미리 아신 사람들을 그분의 아들의 형상과 같은 형상을 이루게 하시려고 또한 미리 정하셨기 때문입니다. 그것은 그분의 아들을 많은 형제들 가운데서 맏아들이 되게 하시려는 것이었습니다.
**30** 하나님은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셨고, 부르신 그들을 또한 의롭다 하셨으며,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영광스럽게 하셨습니다.

**1/10 수**

**계 21:2** 또 내가 보니,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하늘에서 하나님에게서 내려오는데,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신부로 준비되어 있었습니다.

**계 19:7** 우리가 기뻐하고 크게 기뻐하며 그분께 영광을 돌립시다. 왜냐하면 어린양의 결혼 날이 다가왔고, 그분의 아내도 자신을 준비하였기 때문입니다.

**계 21:3-7, 23-27**
**3** 또 나는 보좌에서 나오는 큰 음성을 들었습니다. “보아라,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고, 하나님께서 그들과 함께 장막을 치실 것이다.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될 것이고, 하나님은 직접 그들과 함께 계시며 그들의 하나님이 되실 것이다.
**4** 하나님께서 그들의 눈의 모든 눈물을 닦아 주실 것이며, 더 이상 죽음이 있지 않을 것이고, 슬픔이나 울부짖음이나 고통도 더 이상 없을 것이다. 왜냐하면 이전 것들이 다 사라졌기 때문이다.”
**5** 보좌에 앉아 계신 분께서 말씀하셨습니다. “보아라, 내가 만물을 새롭게 한다.” 그분은 또 말씀하셨습니다. “기록하여라. 이 말들은 믿을 만하고 참되다.”
**6** 그분은 또 나에게 말씀하셨습니다. “다 이루어졌다.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, 시작과 끝이다. 내가 생명수의 샘을 목마른 사람에게 주어 거저 마시도록 하겠다.
**7** 이기는 이는 이것들을 상속받을 것이다. 나는 그에게 하나님이 되고, 그는 나에게 아들이 될 것이다.
**23** 그 성에는 그 성을 비추어 줄 해와 달이 필요가 없습니다. 왜냐하면 하나님의 영광이 그 성을 밝게 하며, 그 성의 등이 어린양이기 때문입니다.
**24** 민족들이 그 성의 빛 가운데 다닐 것이고, 땅의 왕들이 자기 영광을 그 성으로 가져갈 것입니다.
**25** 그 성에는 밤이 없기 때문에, 문들이 종일토록 절대로 닫히지 않을 것입니다.
**26** 사람들은 민족들의 영광과 존귀를 그 성으로 가져갈 것입니다.
**27** 어떤 속된 것도 결코 그 성에 들어가지 못하고, 가증한 짓과 거짓을 일삼는 사람도 결코 그 성에 들어가지 못하며, 오직 어린양의 생명책에 기록된 사람들만 들어갈 것입니다.

**1/11 목**

**아 6:13, 4**
**13** “돌아와요, 돌아와요, 술람미여 돌아와요, 돌아와요, 우리가 그대를 볼 수 있도록.” “너희는 어찌하여 두 진영의 춤을 보듯 술람미를 바라보려 하느냐?”
**4** “내 사랑이여, 그대는 디르사만큼이나 아름답고 예루살렘만큼이나 사랑스러우며 깃발을 든 군대만큼이나 두렵게 한다오.

**아 1:2** “그이 입의 입맞춤들로 내게 입맞춤해 주었으면! 당신의 사랑이 포도주보다 더 나은 까닭이랍니다.

**아 8:14** 내 사랑하는 이여, 속히 오셔서 향기 그윽한 산들 위에 있는 가젤이나 젊은 수사슴처럼 되어 주세요.”

**고후 11:2-3**
**2** 내가 하나님의 질투로 여러분에게 질투합니다. 왜냐하면 내가 여러분을 한 남편이신 그리스도께 순수한 한 처녀로 드리려고 약혼시켰기 때문입니다.
**3** 전에 뱀이 간교하게 하와를 속였던 것처럼, 나는 다만 여러분의 생각이 부패하게 되어 그리스도를 향한 단순성과 순수성을 잃어버릴까 두렵습니다.

**엡 4:13, 15-16**
**13** 그리하여 우리 모두가 믿음에서의 하나와 하나님의 아들에 관한 온전한 지식에서의 하나에 이르게 하고, 충분히 성장한 사람에 이르게 하며, 그리스도의 충만의 신장의 분량에 이르게 하려는 것입니다.
**15** 오직 우리는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붙잡고 모든 일에서 그리스도, 곧 머리이신 분 안으로 자라야 합니다.
**16** 그분으로부터 온몸은 그 풍성한 공급을 해 주는 각 마디를 통하여, 그리고 각 지체가 분량에 따라 기능을 발휘하는 것을 통하여 함께 결합되고 함께 짜입니다. 그래서 몸이 자람으로써 사랑 안에서 스스로 건축되는 것입니다.

**1/12 금**

1. **계 21:22**
**22** 나는 성안에서 성전을 보지 못하였습니다. 왜냐하면 전능하신 분 주 하나님과 어린양께서 그 성의 성전이시기 때문입니다.
2. **계 3:12**
**12** 이기는 이는 내가 나의 하나님의 성전에 기둥이 되도록 하겠다. 그는 결코 나가지 못할 것이다. 나는 나의 하나님의 이름과, 나의 하나님의 성 곧 하늘에서 나의 하나님에게서 내려오는 새 예루살렘의 이름과, 나의 새 이름을 그 사람 위에 기록할 것이다.
3. **왕상 7:15-22**
**15** 그는 두 놋 기둥을 만들었는데, 각 기둥의 높이가 십팔 규빗이었고 각 기둥의 둘레가 십이 규빗이었다.
**16** 또 그는 놋을 부어 만든 기둥머리 두 개를 기둥들 꼭대기에 올려놓았다. 한 기둥머리의 높이가 오 규빗이고 다른 기둥머리의 높이도 오 규빗이었다.
**17** 기둥 꼭대기의 기둥머리에는 격자무늬 그물과 사슬 모양 고리가 있었는데, 한 기둥머리에 일곱 개가 있고 다른 기둥머리에도 일곱 개가 있었다.
**18** 그는 이렇게 기둥을 만들었다. 그물 주위에 있는 석류 두 줄은 기둥 꼭대기의 기둥머리를 덮었다. 그리고 다른 기둥머리에도 같은 식으로 하였다.
**19** 주랑에 있는 기둥 꼭대기의 기둥머리는 백합 모양으로, 직경이 사 규빗이었다.
**20** 두 기둥의 기둥머리는 그물 옆의 불룩한 부분 위 가까운 곳에 놓였다. 그리고 석류 이백 개가 줄지어 두 기둥머리를 두르고 있었다.
**21** 그는 성전 주랑에 기둥들을 세웠다. 그는 오른쪽 기둥을 세우고 그 이름을 야긴이라 하고, 왼쪽 기둥을 세우고 그 이름을 보아스라 하였다.
**22** 기둥 꼭대기에는 백합 모양으로 만든 것이 있었다. 이렇게 하여 기둥 만드는 일이 마무리되었다.
4. **갈 2:9**
**9** 기둥같이 여겨지는 야고보와 게바와 요한도 나에게 주신 은혜를 알고서, 나와 바나바에게 교통의 악수를 하였습니다. 그래서 우리는 이방인들에게 가고, 그들은 할례 받은 사람들에게 가기로 하였습니다.
5. **1/13 토**
6. **계 3:12**
**12** 이기는 이는 내가 나의 하나님의 성전에 기둥이 되도록 하겠다. 그는 결코 나가지 못할 것이다. 나는 나의 하나님의 이름과, 나의 하나님의 성 곧 하늘에서 나의 하나님에게서 내려오는 새 예루살렘의 이름과, 나의 새 이름을 그 사람 위에 기록할 것이다.
7. **롬 12:2**
**2** 여러분은 이 시대를 본받지 마십시오. 오직 여러분은 생각이 새로워짐으로 변화되어 하나님의 선한 뜻,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뜻, 하나님의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십시오.
8. **계 3:7-11**
**7** 빌라델비아에 있는 교회의 전달자에게 이렇게 편지하여라. ‘거룩한 이, 참된 이, 다윗의 열쇠를 가진 이, 열면 닫을 수 없고 닫으면 열 수 없도록 하는 이가 이렇게 말한다.
**8** 나는 너의 일을 안다. 보아라, 내가 아무도 닫을 수 없는 열린 문을 너의 앞에 두었다. 왜냐하면 네가 적은 능력을 가지고도 나의 말을 지켰고 나의 이름을 부인하지 않았기 때문이다.
**9** 보아라, 사탄의 회당에 속한 사람들, 곧 자칭 유대인이라 하지만, 사실은 유대인이 아니라 거짓말하는 사람들이다. 내가 그들을 오게 하여, 너의 발 앞에 꿇어 엎드리게 하고, 내가 너를 사랑한다는 것을 알게 할 것이다.
**10** 네가 나의 인내의 말을 지켰기 때문에, 나도 너를 지켜 주어, 땅에 거하는 사람들을 시험하기 위해 온 땅에 닥쳐올 시련의 때를 면하게 해 주겠다.
**11** 내가 속히 갈 것이다. 네가 가진 것을 굳게 붙잡아, 아무도 너의 면류관을 빼앗지 못하도록 하여라.
9. **계 14:1-5**
**1** 또 내가 보니, 어린양께서 시온산에 서 계시고 그분과 함께 십사만 사천 명이 서 있는데, 그들의 이마에는 어린양의 이름과 그분의 아버지의 이름이 기록되어 있었습니다.
**2** 내가 하늘에서 나오는 한 음성을 들었는데, 많은 물소리와도 같고 큰 천둥소리와도 같았습니다. 내가 들은 그 음성은 수금 연주자들의 수금 타는 소리와도 같았습니다.
**3** 그들이 보좌 앞과 네 생물과 장로들 앞에서 새 노래를 부르니, 땅에서 값을 치르고 사 온 십사만 사천 명 외에는 아무도 그 노래를 배울 수 없었습니다.
**4** 그들은 여자들로 더럽힌 적이 없는 순결한 이들입니다. 그들은 어린양께서 어디로 가시든지 그분을 따라가는 사람들이며, 하나님과 어린양께 첫 열매로 드려지도록 사람들 가운데서 사 온 이들입니다.
**5** 그들의 입에서는 거짓말이 발견되지 않았습니다. 그들은 흠이 없습니다.
10. **1/14 주**
11. **계 22:1-7, 10, 14, 21**
**1** 또 그 천사는 나에게 수정처럼 빛나는 생명수의 강을 보여 주었습니다. 그 강은 하나님과 어린양의 보좌에서 흘러나와 그 성의 길 가운데로 흐르고 있었습니다.
**2** 강의 이쪽과 저쪽에 생명나무가 있어서 열두 번 열매를 맺는데, 달마다 열매를 맺었습니다. 그 나무의 잎들은 민족들을 치료하기 위해 있습니다.
**3** 더 이상 저주가 없을 것이고, 하나님과 어린양의 보좌가 그 성안에 있을 것이며, 그분의 노예들이 그분을 섬길 것입니다.
**4** 그들은 그분의 얼굴을 볼 것이고, 그분의 이름이 그들의 이마에 있을 것입니다.
**5** 더 이상 밤이 없겠고, 그들에게는 등불과 햇빛이 필요하지 않습니다. 왜냐하면 주 하나님께서 그들을 비추실 것이기 때문입니다. 그들은 영원히 다스릴 것입니다.
**6** 그 천사가 또 나에게 말하였습니다. “이 말씀은 믿을 만하고 참됩니다. 주님, 곧 신언자들의 영의 하나님께서 속히 일어나야 할 일들을 그분의 노예들에게 보이시려고 그분의 천사를 보내셨습니다.
**7** ‘보아라, 내가 속히 가겠다.’ 이 두루마리에 있는 예언의 말씀을 지키는 사람은 복이 있습니다.”
**10** 그가 또 나에게 말하였습니다. “이 두루마리에 있는 예언의 말씀을 봉인하지 마십시오. 왜냐하면 때가 가까이 왔기 때문입니다.
**14** 생명나무에 이르는 권리를 얻고 문들을 통하여 그 성안으로 들어가도록 자기의 겉옷을 빠는 사람들은 복이 있다.
**21** 주 예수님의 은혜가 모든 성도들과 함께 있기를 바랍니다. 아멘.
12. **찬송: 976 (英) 주가 구속하신 백성 (中:775)**

**교회전체 로마서 진리추구**

*The All-inclusive Christ*, chs. 5-6